

# 심리치료에서 상호주관성 개념의 의미 탐색

## Study on the Concept of Intersubjectivity in Psychotherapy

최이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 및 교육심리 전공

Lee-Seon Choi(sojong87@naver.com)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호주관성에 대한 연구경향성과 심리치료로서의 임상적 의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심리치료에서의 상호주관성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개념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호주관성의 개념 및 연구경향성 과 둘째, 발달과정으로서의 상호주관성, 셋째, 애착과 상호주관성, 넷째, 심리치료에서의 상호주관성으로 나누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의 발달에서 상호주관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심리치료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이론적인 기초와 근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상호주관성 | 상호주체성 | 주체성 | 상호작용 | 심리치료 | 애착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research on the tendency of Intersubjectivity. To this end, this paper is how intersubjectivity in psychotherapy was exploring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importance. Looking specifically, was undertaken to examine closely divided as follows : first, the concept of and theoretical research on the tendency of Intersubjectivity, and second, the intersubjectivity as development process and the third, attachment and intersubjectivity, fourth, intersubjectivity in Psychotherapy.

Through this study, Intersubjectivity, whether how is having an impact in the human development, how it can be applied in the psychotherapy field, could be utilized to provide a rationale and its theoretical basis.

■ keyword : | Intersubjectivity | Mutual subjectivity | Subjectivity | Interaction | Psychotherapy | Attachment |

## I. 서론

이 글은 상호주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심리치료에서의 중요성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리상담 및 치료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Corey[35]는 분석적 접근, 경험적 관계 지향적 심리상담 및 치료, 활동 심리 상담 및 치료와 체제 관점 등으로 크게 나누었다.

심리상담 및 치료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간 관계형성과 상호적인 인간관계가 중요시 된다. 그렇다면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의 치료적인 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39][43] 치료과정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치료적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연구되어진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치료의 성과를 가장 잘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은 상담에서의 관계를 들 수 있다 [44][56]. 구체적으로, 치료적 관계는 임상인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 증거 기반의 심리치료들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심리치료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52].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좋은 치료적 관계가 상담을 촉진시키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대부분 좋은 관계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30].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전이와 역전이 있는데, 이러한 전이와 역전을 설명하기 위해 치료적 동맹, 상호주관성, 관계 속에서의 자기 체험, 상호성(mutuality) 등이 사용된다[20][75]. 또한 애착과 상호조율과 공명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체현된 것으로서 자기인식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36]. 이것은 모두 정서성을 기반으로 한다[10].

치유과정에서 치료적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들과 사례들이 있는데, 다른 이가 정서, 움직임이나 나타내거나 접촉을 시도해보면, 개인 내에서 거울 뉴런<sup>1</sup>이 활성화된다[20].

상호주관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주기'라는 비언어적인 감각으로 몸짓과 움직임, 감각과 정서 등에 대한 상호조절 동안 일어나는 대인관계상의 공명이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이다. 두 사람 간에서 진행되는 상호조절은 시간을 두고 형성되며, 성공적으로 소통된 각 회기는 긍정적인 표현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연결, 상호확신, 안전감들에 대한 느낌을 증폭하게 되는 정서적 조율을 만들어낸다[36].

이렇게 치료적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그 관계의 특징은 좋은 가족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애착과 상호주관성의 특징과 똑같다. 치료적 관계가 애착과 상호주관성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치료가 발달에 필수적인 안정감과 탐구를 제공할 수 있다[32].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되어온 상호주관성이 정신분석의 전통적 개념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이론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그 개념의 어려움과 합의된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심리치료분야에서는 이 개념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다루어져 온 연구 분야가 질적·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상호주관성의 개념이 심리치료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논의되고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철학의 주요한 개념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상호주관성 개념의 면밀한 이론적 고찰 과정을 통해 상담심리학이나 가족치료 혹은 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상호주관성의 맥락 속에서 심리치료의 방법론적 접근으로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있어 적절한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주관성의 개념과 발달 및 애착으로서의 상호주관성과 심리치료에서의 중요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상호주관성이론 고찰

### 1. 상호주관성의 개념 및 연구동향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개념은 현재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본래는 철학의 주요한 개념이었다. 상호주관성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Husserl이 생활세계<sup>2</sup>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형적 자아 대신 끌어들이는 상호주관성의 개념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독일 관념론의 철학인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와 주체의 관계로 보는 상호주관성의 인식전환은

1 다른 행위자가 행한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위를 직접 할 때와 똑같은 활성을 내는 신경세포. 이 뉴런들이 인간 뇌에서 하전두회와 하두정엽에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두정엽-전두엽 거울뉴런계라고 일컫는다.

2 생활세계는 일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객관적 세계의 바탕이 되는 직접적인 경험의 세계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Husserl에 의해 이루어졌다. 생활세계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일상적 세계로 반성적 사고가 아직 없는 범주화되지 않은 선형의 세계를 의미한다[14].

로 주관성의 거부가 아닌 상호공존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9].

Husserl의 고전적 접근을 보면, 상호주관성이란 나와 같은 의식을 가진 다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사람 이상이 공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상호주관성은 개별적 의식 또는 상이한 의식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관계로 공동의식을 전제로 한다. Husserl이 상호주관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의식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는 먼저 타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14].

상호 이해와 대화는 이미 지식의 공동체, 공통적 주변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Schutz에게 있어서 사회세계란 상호주관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세계는 다른 존재와의 만남의 영역이며, 내가 세계 내의 다른 존재와 대상을 향해 행동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 세계는 나의 사적인 세계가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세계이고, 세계에 대한 나의 지식은 처음부터 상호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73].

이렇게 현상학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개인적 의식이나 개인적 자아가 아닌 “공동체 의식” 혹은 “공동체적 자아”를 의미했다. 이는 주관성은 비과학적이고 객관성만이 신뢰할 만하다는 실증주의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으로부터 발생한 개념으로, 객관성이란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주관성이 포함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심리학 등에선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이해”로 상호주관성을 이해한다[10][15][46].

공간이 주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이 세계를, 마치 이 세계가 하나의 공간에 있듯이, 관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잘 이해된 “주체”, 즉 현존재가 이미 공간속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존재의 본질이 “세계 내 존재”로 규정되며, 현존재에게 구성적인 세계-내-존재가 공간을 열어 밝힌 이상 공간은 세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 안에서 사물들과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존재는 탈 세계화된 주체가 아니라, “세계-내-존재”임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현존재 즉 “거기에-있는-존재(Dasein)”임을 말한다. 여기서 “거기(da)”는 “세계-내(In-der-Welt)”

를 말한다.

즉 인간은 세계-내 존재(In-der-Welt-sein),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Heidegger, 2006). 이렇게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상호주관적 존재인 것이다.

부버[24]에서는 인간이란 독자적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인격과의 공존적 관계 속에서 실존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상호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남은 ‘나’와 ‘너’의 존재론적인 ‘사이’에서 성립하며 이 ‘사이’에서 서로가 전존재를 거는 행위이기에 이러한 상호관계를 ‘상호주관성’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부버는 사람들의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을 강조하며 이 ‘만남’을 상호주관성 형성으로 본다.

상호주관성이론은 교육학에서도 논의가 되어왔는데, 교육학 범주 내에서 논의된 상호주관성 이론의 대표적인 예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sup>3</sup>, 부버의 대화철학, 발덴펠스의 응답적 현상학을 들 수 있다[8][50].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듀이의 의사소통 개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이론 등을 상호주관성 이론의 범주에 추가하여 이해하고 있다[18]. 이것 외에도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철학이나 호네프의 인정투쟁이론 역시 상호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8]. 이것은 사상적으로는 “주체 중심성으로부터 관계중심성으로의 전환”[19]의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교육학적으로는 “고전적 교육관계론”[50]의 범위가 확장되고 현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2][8].

또한 Goncu와 Cannella[42]에 따르면 유아의 놀이상

3 김성동[1]에서는 현대 철학사에서 상호주관주의를 세가지 흐름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광의의 현상학적 전통에서 검토하여, ‘신체적 자아’가 주관의 상호성을 매개하는 요소로 제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자가 쉐러(Max she-ler)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가 있다.

두 번째는 20세기 들어와서 언어철학적 시각을 응용하여 접근한 것으로 ‘언어’를 주관의 상호성을 매개하는 요소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학자가 미드(George Herbert Mead)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이다. 세 번째는 상호주관성이 문제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파악하고 철학적인 명제들이 상호주관성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재진술되어야 한다고 보는 대화철학으로 ‘대화’를 주관의 상호성을 매개하는 요소로 제시하며 이에 해당하는 학자로 부버(Martin Buber)와 슈트라스어(Stephan Strasser)가 있다.

황, 과제 수행상황 그리고 토의상황 뿐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또래 갈등의 해결 및 중재에 있어서도 상호주관성의 형성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에서도 유아들의 사회적인 가상놀이 혹은 극 놀이와 상호주관성과의 발달 및 영향에 대해서 연구되어져 왔다. 교사에 의해 설정된 활동 범위 안에서 유아들이 토의를 통해 상호주관성에 도달하고 공동의 의미를 창출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 이지현, 박은혜, 김희진은 교실에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과 성인-유아 간 상호작용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11], 배재정, 정정희[6]는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서성을 강조한 심리학적인 측면과 의사소통과 사회성을 강조한 교육학에서, 상호주관성을 발달적인 측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호주관성의 의미와 연구경향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은 본래 상호주관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상호주관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2. 발달 과정으로서의 상호주관성

Aron[17]은 상호주관성은 비록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사람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상호주관성은 두 개의 주관성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두 마음의 공유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동기 발달적 관계와 심리치료에 중요한 주제이다. 유아기 연구에 의하면 초보적인 형태의 상호주관성-일차적 상호주관성-은 우리에게 사전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신경학적으로 내장된 것 같다. 일차적 상호주관성(primary intersubjectivity)[78]은 부모들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아이의 경험으로부터 아이의 자기에 대한 관점이 나오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표현 양상에 대해 수용적이며 합쳐진 주의와 일치된 정서, 호기심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반응해 줄 때, 이는 아이의 주관적 경험의 한 부분이 되며 이후 어린 시기의 자기감으로 통합된다. 부모들이 아이의 비언어적 표현 속에서 찾아내고 반응한 의미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핵심의미가 된다. 아이는 엄마가 표현하는 눈빛이 단지 부모 속에 존재하는

부모의 한 특징을 나타내기 보다는 아이에 대한 반응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얼굴과 눈빛에 순간순간 표현되는 것들이, 아이 자신이 순간순간 만들어 내는 표현에 매우 상응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아이의 표현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내적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며, 엄마가 이에 상응하여 반응해 줌으로써 아이는 엄마가 이런 상태를 알고 있으며, 또한 엄마가 즐거움과 흥미, 수용적 태도와 기쁜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37].

Trevarthen[77]이 발표한 논문에서 5명의 신생아가 생후 6개월 동안, 작은 장난감이 있을 때와 그들의 어머니가 말을 걸 때 아이들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신생아는 생후 2달이 되면서 어머니에게만 되돌림 반응을 보이고 장난감에게는 되돌림 반응이 없었다고 하고, 각 아이-어머니 쌍은 서로 다른 상호 행동 양상을 보였는데, 아이는 어머니 행동을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리듬감 있는 박자에 동시성을 가지고 반응하며 최고조의 반응을 ‘함께’ 만들어 냈다. 이러한 아이-어머니 사이의 행동에 대해 Trevarthen은 상호 의도성 또는 마음 상태를 공유하는 것(sharing of mental states)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Trevarthen[78]은 모방을 넘어 유아와 성인간의 이루어지는 상호적으로 조절된 의사소통을 발견한 것이다. 유아들과 그들의 상대는 이처럼 즉각적인 공감적 접촉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의 Daniel Stern[68][69]과 그의 동료들 및 하버드 대학의 Jerome Bruner 인지연구센터의 그룹은 영아와 어머니가 친밀하고 안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그 타이밍과 표현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말과 표정과 접촉이 지닌 리듬과 표현의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어울리고자 하는 의도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35].

Daniel Stern(1985)은 한 살 된 아기들을 눈으로 보기에 절벽처럼 보이는 구조물 건너편에 놓여 있는 탐나는 장난감을 손에 넣기 위해 약간 겁이 나는 유리로 된 표면을 건너가야 하는 실험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런 모호한 상황에 처한 아기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 어

때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결같이 엄마의 얼굴-그리고 그 얼굴이 전하는 주관적인 평가-을 본다. 이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 아기는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감행할 정도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엄마가 겁이 난 것처럼 보이면 아기도 당황하는 듯하고 뒤로 물러난다. 이런 유형의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ing)'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 공동주의(joint attention)의 형태를 수반한다. 주의와 초점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관계성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의도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다. 정서조율(affect attunement)은 Stern이 사용한(1985, 2000) 용어로서 감정의 공명과 전달의 이중 과정을 가리키며, 이 과정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어떤 것을 느끼게 해 주고, 또한 공유된 경험의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준다고 하였다[33]. 또한 Condon과 Sander(1974)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성인의 동영상 연구를 통해 밝혀진 타이밍의 미세조정(fine-tuning)이 엄마와 영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일어난다고 보고했다[35].

또한 태어난 지 몇 주 되지 않은 아기가 엄마 얼굴 사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일어나는 뇌 활동의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상호주관적 소통[33]을 위한 정밀한 '공감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76]. 엄마들은 아이를 볼 때 그냥 언어적으로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흥분에 맞추어 몸으로 혹은 리듬으로 아이의 감정에 조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아는 상호주관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관계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자기와 타인을 알고자하며, 상호주관적 소통을 하기위해 공동발견과 의미탐색의 경로를 번갈아가며 발달시켜나가는 것이다.

### 3. 애착과 상호주관성

애착과 상호주관성은 인간의 심리적 탄생과 발달의 이중 나선을 표상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애착과 상호주관성은 새로운 것의 발견, 신비로움, 즐거움,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정서와 의미에 대한 강한 신속성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애착과 상호주관성의 중요성은 전 생애를 통해 유지되며,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매우 명백해진다. 애착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와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패턴에 대해 언급하면, 아이는 이 행동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의 다양한 자기표현에 언제나 접근가능하고 민감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모가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32].

Stern은 애착과 상호주관성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보완적인 동기체계라고 믿고 있다. 애착체계는, 한편으로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물리적 근접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욕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탐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상호주관적 체계는 우리가 타인을 알고 또한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은 욕구에 의해 작동된다. 애착이 안정감의 느낌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상호주관성은 심리적 친밀감과 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한다. 애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관적 경험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이 경험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도 기여한다. 상호주관적 관계성 없이도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애착 없이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하지만(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이지만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껴지는 사람), 일반적으로 애착과 상호주관성은 서로를 증진한다[33].

애착과 상호주관성을 인간발달의 서로 다른 두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71][78]. Bowlby는 유아기와 그 이후에 애착 인물이 우리에게 좋거나 좋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적응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상호주관성은 모든 정서적 유대 관계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대인관계 활동을 가리킨다. 뚜렷하게 구별되진 아니건 애착과 상호주관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 각각의 영향들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은 주제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두 번씩 말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상호주관성이 없다면 애착안정성의 형성과 그 의미 또한 제한적이 될

것이다. 안정애착 대상이 없다면 상호주관적 경험의 발달 범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모습에 대한 상호주관적 경험의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다. 부모가 그들의 자녀와 상호주관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 부모는 애착대상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 관계를 맺는 동안 부모는 자녀의 경험을 공동 조절하고 그것의 의미를 공동 창조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아이에게 언제나 접근 가능하고,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헌신을 통해 상호주관적 경험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기적인 관계균열을 인내심 있게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회복해야 한다. 아이가 관계의 균열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더라도 그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안전감을 느끼려면 관계 회복의 질이 중요하다[32].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상호주관적 경험과 안정애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애착과 상호주관성은 인간발달에 보완적이라고 서로 근접하게 얽혀 있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상호주관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이 자녀 혹은 내담자들의 미해결된 발달과제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4. 심리치료에서의 상호주관성

Bowlby가 치료에 있어서 애착과 의사소통의 역할을 묘사하면서 상호주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과정에서의 그의 묘사는 현재의 애착 중심의 치료모델에서의 제안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는 ‘환자 자신과 환자의 경험에 대한 탐색을 하는 데 있어 환자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환자에게 해석을 해주는 치료자’로서 역할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23].

사실 한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사이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자기와 타인의 내적작동모델을 구조화하고 재구조화하는 데서 각각의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만약 정신치료의

과정이나 환자의 내적 작동 모델을 재구조화하는 동안에 그의 애착관계를 살펴보면,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서 감정적 의사소통이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Bowlby의 이론에 신경심리학적 관점을 도입한 Allan Schore는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에서의 결합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조절을 최적화하는 치료적 맥락에서 회복된다”[64]라고 하였다.

치유행위는 구조화된 정보나 행동을 지시하고 훈련 시키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육적인 동반 관계 속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의미를 배우려는, 모든 인간이-심지어 가장 어리고 가장 취약한 사람조차도-가지고 있는 생득적 성향을 공감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열정의 에너지가 사라져 버린 내담자와 작업하는 치료자는 선택을 해야 한다. 감정적 상실의 이유와 원인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세심한 자극과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 일말의 장난스러움(playfulness)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가, 나아가 혐오나 경쟁이 없는 인간관계라는 놀라움을 공유하는 기쁨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유아연구를 통해 음악치료, 운동 혹은 춤 치료, 연극 치료, 그림치료 신체 심리치료 같은 비언어적 상호주관적 치료가 효과적임은 증명되었다. 이런 치료법들은 모두 우리가 자신의 몸 뿐 아니라 만지고 보고 듣는 타인의 몸의 움직임과 그 양상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치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서전이 그리고 여기 출연하는 각자를 지지하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학대받았거나 정서적 혼란을 보이는 아이들 혹은 자폐증이나 레트장애 같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의 작업을 통해, 치료나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수준에서 친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일상적 경험 속에서 뿐 아니라 환경적 행동 유도성과 수반성을 증진하는 훈련프로그램 속에서도 모두 적용된다[51]. 또한 자기를 위한 삶 및 다른 사람

들과 함께 하는 삶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훈련은 오히려 의사소통-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감적 상호주관성의 과정-이 잘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적이다 라고 Trevarthen은 말하고 있다[35].

상호주관적 경험의 특성 중 조율(attunement)은 상호주관적 기반을 촉진시키는데 필수적인데, 이것은 상호주관적 경험 속에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참석자들의 정서적 활력(활력정서)<sup>4</sup>에 잘 맞춰 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서로 잘 맞추어진 정서의 흐름 속에서 공동 조절되며 사건은 좀 더 충분히 경험된다. 어떤 사건에 상호주관적 경험을 기울일 때 각각의 참여자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하고, 가능한 통합을 통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낸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경험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 각자의 경험은 재 조직화되며, 모두에 의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공동 창조되며, 참여자 각각에 의해 경험된 사건은 이제 구성원 각자의 이야기 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66].

또한 정신분석에서도 상호주관성에 대한 개념들이 중요시된다. 즉 분석상황을 환자(피분석자)와 분석가라는 두 주관적 경험 세계(주관성)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본다[12][57]. 상호주관성 이론을 정신분석이론의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신 분석에 상호주관성이란 용어를 도입한 Stolorow 그룹이 상호주관성 이론을 발전시킨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olorow와 Atwood는 Freud, Jung, Reich, Rank 등의 자서전적인 삶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이를 모아 <Face in a Clouds: Subjectivity in Personality Theory>를 출판하였다[74]. 그들의 결론은 결국 모든

심리이론은 그 이론을 만든 이론가의 주관적 심리적 삶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책의 말미에 정신분석적 현상학(Psychoanalytic Phenomenolog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Stolorow와 Atwood는 나중에 ‘표상의 세계’(Face in a Clouds)라는 용어를 버리고 ‘주관적 세계’(subjective worl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Face in a Clouds: Subjectivity in Personality Theory>책에 상호주관성이란 개념이 명시되어 소개되진 않았지만, 그 의미는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성격이론가들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세계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미국 정신분석 담론에 상호주관성이란 용어가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8년에 발표된 <정신분석 치료에서 표상의 세계>이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전이와 역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형성된 환자와 분석가의 주관적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즉 두 주관성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보았다[13].

Levine와 Friedman은 상호주관성 이론이 욕동이론을 포함한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의 의미들을 확장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47]. 그리고 상호주관성은 특정한 분석학과로부터 독립된 광범위한 초이론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신분석에 상호주관성이란 용어를 처음 도입한 Stolorow와 Atwood나 Orange(1998), Bacal(1998) 등은 상호주관성이론을 Kohut의 자기심리학 흐름으로부터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한다[73].

치료 동맹의 정신생물학적 핵심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의 필수적 생물학적 목적은 우뇌/마음/몸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다 [64]. 만약 치료자가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정서에서 느껴지는 활력 정도에 잘 맞춰 줄 수 있다면 그 구성원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감소되며 이는 치료자가 그 사람에게 의해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리듬과 강도, 박자, 윤곽, 모양, 기간 등에 잘 맞춰줌으로써 일어난다[70]. 어떤 사람이 정서적으로 잘 조절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35]. 브롬버그의 관찰에 따르면, 치료

4 활력정서vitality affect:엄마가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조율되는 비언어적 소통을 설명하기 위해 Daniel Stern(1984)이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우리가 사람들로 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도나 특성이 달라지며 그 형태가 객관적으로 변화한다. 우리의 신경계가 자극의 강도와 특성의 변화를 주관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을 활력정서라고 말한다. Stern은 활력정서란 시간에 따라 자극이 변하면서 생기는 내적 기분 상태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전환을 말한다고 하였다[71].

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 공유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상호주관적 장을 통해 환자를 아는데 전념한다면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이 깨달음 속에서는 단어와 생각들이 경험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게 된다[25]고 하였다.

김태완은 심리치료에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그리고 치료자 내담자 상호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 또 하나의 심리적 공간을 창조하고자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5].

이렇게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게 될 맥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의미를 공동 창조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지속적이고도 민감하게 내담자에게 조율하여 이러한 과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아기와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결 론

상호주관성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이고 관계론적인 개념 그 이상이다. 즉 상호주관성은 인간의 발달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수반하고 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공동의 재경험, 의미창조 등을 의미한다.

상호주관성이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나타났다고 명확하게 양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학의 의사소통이론에서 Alex는 Laing(1966)의 분석틀을 변형하여 상호주관성의 대화분석을 위한 대화 양상을 부호화하는 틀을 제시하였지만[15],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상호주관성을 양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심리치료에서 상호주관성의 개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렇게 치료적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관성의 임상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주관성 장에서 일어나는 우뇌와 우뇌 사이

의 소통이 정신치료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Bowlby가 ‘인간의 애착과 상실’경험을 다룬 3부작의 첫 번째 책인 ‘애착’을 1969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래로 심리치료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다. 그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신분석가들은 유기체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1]. 이러한 생각은 다른 대상관계이론가인 Fairbairn이나 Winnicott등과 일맥상통한다[4].

Schore는 치료동맹 속의 상호주관적 장에서 우뇌와 우뇌 사이의 의사소통이 행하는 핵심적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64-66].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 또는 부모자녀 사이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난 신체에 기반을 둔 극도로 빠른 정서적 소통이라는 대화는 두 사람 모두의 의식적 인식 기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순간순간의 심리적 삶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다양한 무의식적 정신기제는 자기 조절이라는 과업에 있어 각자의 몫을 수행하면서 개체가 환경 속에서 유리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18].

Greenberg는 이 분야에서 우리는 조절의 암묵적이고 관계적인 처리과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고[42], 이 원칙을 정신치료에 도입한 Ryan은 연구자와 임상가 모두는 인간행동의 발생과 조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60]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무의식적 정서조절이 의식적 정서조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64-66].

이렇게 발달과 정신치료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화 작업 속에서 감정이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언어적, 의식적, 순차적 정보처리는 좌뇌에서 일어나는 반면 무의식적, 비언어적, 감정적 정보처리는 우뇌에서 일어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47]. 우뇌는 감정인식, 자발적이고 강렬한 감정표현, 그리고 감정의 비언어적 소통에 있어서 좌뇌보다 우세하다[64]. 이렇게 상호주관적 장에서 일어나는 우뇌와 우뇌 사이의 소통이 정신치료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초점이 되는 증거들이 있는 것이다.

둘째, 조율된 공감적인 임상가의 상호정서조절이라는 배경이 안전한 장을 형성하며, 이 안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53]는 것이다.

내담자의 정서내성 범위와 치료자의 정서내성범위가 있다고 하자, 이 범위의 가장자리, 즉 조절경계에서 정신생물학적으로 잘 조율된 공감적인 치료자는 내담자의 울동적인-조절되거나 조절되지 못한 자율신경계 활성이 위아래로 출렁이는-패턴과 자신의 자율신경계 패턴을 암묵적인 방식으로 순간순간 추적하면서 서로 조화시킨다. 동조된 리듬 패턴이 상호적으로 공명할 때 우뇌사이의 고유한 상호작용은 활기찬 각성과정을 증폭시키며, 이러한 상호적 정서조절을 통해 상호주관적 장이 공동 창조된다[65]. 상호주관성의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에 대한 작업에서 우뇌가 주관적 정서 경험에 있어 우세하며, 치료 시 두 사람의 우뇌 간 정서의 상호교환은 상호주관성 개념으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다고 Schore는 말한다[63]. 상호주관적 장은 상호작용하는 두 마음 뿐 아니라 두 몸의 상호작용이기도 하며, 정서적 공명이 일어나면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각성의 증폭과 통합 역시 같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의 전초과정이 상호주관적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함께 경험하느냐에 따라 재경험하고 내적 심리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주관적 정신치료 작업은 치료자가 내담자를 위해 될 행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치료자가 어떻게 내담자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료적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북미에서는 상담, 심리치료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다시 재검토하면서 어떤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사하는 연구팀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물론 여러 심리치료 기법들이 비디오 분석을 통하여 치료적 요인이나 기법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상호주관성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발달적 성과로서나 혹은 심리치료의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심리치료분야에서 상호주관성의 개념을 면밀히 적용시키고, 또한 부모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적이고 발달적인 의미로서 확대 적용하여 다양한 경험적 사례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김성동, *상호주관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2] 김용숙,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유아의 의사소통유형과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0, pp.474-481, 2009.
- [3] 김윤옥,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 화법 교육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4] 김창대, *애착이론의 적용: 불비의 ‘애착’중, 옮긴이 해제*, 나남출판사, 2006.
- [5] 김태완, *심리치료에서 치료자-내담자 간 상호주관성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6] 배재정, 정정희, “유아기의 사회적 가상놀이와 상호주관성 발달에 관한 이론적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Vol.8, No.1, pp.155-175, 2003.
- [7] 오종숙, “프로젝트 학습에서 아동의 상호주관성과 미술표현의 관계에 대한 해석적 이해,” *미술과 교육* Vol.10, No.1, pp.81-110, 2009.
- [8] 우정길, “탄생적 상호주관성과 교육:비에스타의 아렌트 수용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제36권, 제1호, pp.53-72, 2014.
- [9] 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의 문제,” *철학사상*1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pp.29-70, 2003.
- [10] 이승희, “놀이치료자의 내적 경험이 치료적 관계와 놀이치료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교육치료연구*, Vol.6, No.2, pp.229-250, 2014.
- [11] 이지현, 박은혜, 김희진, “공동의 의미창출 과정

- 에서의 유아 역할의 재발견,” 유아교육연구, Vol.18, No.2, pp.115-134, 1998.
- [12] 최영민, “상호주관성,” 정신분석학회논문지, Vol.19, No.2, pp.125-138, 2008.
- [13] 최영민, *정신분석강의*, 미간행물, 2014.
- [14] 최정실, “교육내용의 상호주관성 구성,” 교육연구회, Vol.36, No.1, pp.37-51, 1998.
- [15] 한전숙, *현상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87.
- [16] Alex Gillespie & Flora Cornish, “Intersubjectivity: Toward a Dialogical Analysi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Vol.40, No.1, 2009.
- [17] L. Aron, “Analytic impasse and the third: clinical implications of intersubjectivity theory,” *Int J Psychoanal*, Vol.87, pp.349-368, 2006.
- [18] J. A. Bargh and T. L. Chartrand, “The unbearable automaticity of 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4, pp.462-447, 1999.
- [19] G. Biesta, “Radical Intersubjectivity: Reflections on the ‘Different’ Foundation of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33, No.1, pp.7-21, 1999.
- [20] G. B. Bourque, “Comming Home to the Embodied Self : Review of The Psychophysiology of Self Awareness,” *Rediscovering the Lost art of Body Sense, RMIJ*, Vol.2, No.2, pp.22-27, 2009.
- [21]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Original publication 1969), 1982.
- [22] J. A. Bowlby,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1988.
- [23] J. Bowlby, *애착 [Attachment]*, (김창대 역), 경기도:나남출판사, 2009.
- [24] Buber, *만남의 교육*, 강선보 역, 서울: 양서원, 1996
- [25] J. Briere and C. Scott,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New York: Sage, 2006.
- [26] P. M. Bromberg, *Awakening the dreamer Clinical journeys*, Mahwah, NJ: Analytic Press, 006.
- [27] J. S. Bruner, *Processes of cognitive growth: Infancy(Heinz Werner Lectures)*, Worcester, MA:Clark University Press(with Barri), 1968.
- [28] J. S. Bruner, *Acts of meaning*,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29] Clara E. Hill and Karen M. O'Brien, *상담의 기술[Helping skill: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주은선 역), 학지사, 2001.
- [30] W. S. Condon and L. S. Sander, “Neonate movement is synchronized with adult speech: Interactional participa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Science*, Vol.183, pp.99-101, 1974.
- [31] A. Damasio, *The Feeling of what happens: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New York:Harcourt, Brace, 1999.
- [32] Daniel A. Hughes, *애착중심 가족치료 [Attachment-Focused Family Therapy]*, (노경선외 6명역), 서울:눈 출판사, (원전은 2007년에 출판), 2014.
- [33] David J. Wallin, *애착과 심리치료,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공역), 학지사, 2007.
- [34] J. Decety and T. Chaminade, “Neural correlates of feeling sympathy,” *Neuropsychologia*, Vol.41, pp.127-138, 2003.
- [35] Diana Fosha, Daniel J. Siegel, Marion F, Solomon, *감정의 치유력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노경선, 김건중 외 역), 서울: 눈 출판, 2013.
- [36] A. Fogel, *The psychophysiology of self-awareness: Rediscovering the lost art of body sense*, New York: WW Norto, 2009.
- [37] P. Fonagy,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ysterious unfolding of disturbance in

- tim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Vol.24, pp.212-239, 2003.
- [38] P. Fonagy and M. Target, "The mentalization focused approach to self 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20, No.6, pp.544-576, 2006.
- [39] L. Gaston, "The concept of the alliance and its role in psychotherapie :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Psychotherapeut*, Vol.27, pp.143-153, 1990.
- [40] Gerald Corey,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조현추, 조현재 공역), 시그마프레스, 2006
- [41] A. Goncu and V. Cannella, "The Role of Teacher Assistance in Children's Construction of Intersubjectivity During Conflict Resolu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73, pp.57-69, 1996.
- [42] L. S. Greenberg, "Emotion coming of a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aractice*, Vol.14, pp.414-421, 2008.
- [43] M. Hartmann, K. T. Kronmuller, H. Horn, C. Reck, M. Backenstrab, K. Neumann, D. Victor, and K. Winkelmann, "Wirkfaktoren in der Kurzzeittherapie bei Kindern und Jugendlichen," *Zeitschrift fur Theorie und Praxis der analytischen Kinder und Jugendlichen-Psychoanalyse*, Heft 106, pp.123-152, 2000.
- [44] A. O. Horvath and B. D. symonds,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8, pp.139-149, 1991.
- [45] G. Holstege, R. Bandler, and C. B. Saper(Eds.), *The emotional motor system*, Amsterdam: Elsevier, 1996.
- [46] E. Husserl, *현상학의 이념.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영호, 이종훈 역), 서울 :서광사, 1989.
- [47] J. K. Larsen, N. Brand, B. Bermond, and R. Hijman,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lexithymia: A review of neurobiological studi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54, pp.533-541, 2003.
- [48] H. Levine and R. Friedman, "Intersubjectivity and interaction in the analytic relationship:a mainstream view," *Psychoanal Q*, Vol.69, pp.63-92, 2000.
- [49] M. D. Lewis, "Bridging emotion theory and neurobiology through dynamic systems model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28, pp.168-194, 2005.
- [50] W. Lippitz and J. G. Woo, *Padagogischer Bezug, Erzieherisches Verhalten*. Frost, U. u. a.(Hrsg), *Handbuch der Erziehungswissenschaft* (Bd. I), Paderborn: Schoningh, pp.405-419, 2008.
- [51] S. Malloch and C. Trevarthen, *Communicative musucality: Exploring the basis of human companionship*, Oxford.U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52] J. C. Norcross, "Purposes, processes, and products of the task force on empirically supported therapy relationships," *Psychotherapy*, Vol.38, pp.345-356, 2001.
- [53] C. Ogden P. Pain, K. Minton, and J. Fisher, "Including the body in mainstream psychotherapy for traumatized individuals," *Psychologist-Psychoanalyst*, Vol.25, No.4, pp.19-24, 2005.
- [54] T. Ogden, "The analytical third: working with intersubjective clinical facts," *Int J Psychoanal Q*, Vol.75, pp.3-20, 1994.
- [55] T. Ogden, "The analytic third: Implications for psychoanalytic theory and technique," *Psychoanal Q*, Vol.73, pp.167-195, 2004.
- [56] D. E. Orlinsky, K. Grawe, and B. K. Parks,

-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A. E. Bergin & S. L. Garfield(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Basic Books, 1994.
- [57] J. Panksepp, Mood changes, *Handbook of clinical neurology: Vol.1, Clinical neuropsychology* (pp.271-285),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New York: Norton, 1985.
- [58] O. Renik, "Intersubjectivity in Psychoanalysis," *Int Psychoanal*, Vol.85, pp.1053-1064, 2004.
- [59] G. Rizzolatti and M. A. Arbib, "Language within our grasp," *Trends in the Neurosciences*, Vol.21, pp.188-194, 1998.
- [60] R. Ryan, "Motivation and emotion: A new look and approach for two reemerging fields," *Motivation and Emotion*, Vol.31, pp.1-3, 2007.
- [61] A. N. Schore,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Mahwah, NJ: Erlbaum*, 1994.
- [62] A. N. Schore, "Interdisciplinary developmental research as a source of clinical models, In M. Moskowitz, C.Monk. C.Kaye, & S. Ellman(Eds.), *The neurobiological and developmental basis for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pp.1-71), New York: Jason Aronson, 1997.
- [63] A. N. Schore, "Commentary on emotions: Neuro-psychoanalytic views," *NeuroPsychoanalysis*, Vol.1, pp.49-55, 1999.
- [64] A. N. Schore,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ing right brain: Linking developmental neuroscience to pediatrics," *Pediatrics in Review*, Vol.26, pp.204-211, 2005a.
- [65] A. N. Schore, "A neuropsychanalytic viewpoint: Commentary on paper by Steven H. Knoblauch," *Psychoanalytic Dialogues*, Vol.15, pp.829-854, 2005b.
- [66] A. N. Schore, "Review of *Awakening the dreamer: Clinical journeys* by Philip M. Bromberg," *Psychoanalytic Dialogues*, Vol.17, pp.753-767, 2007.
- [67] Siegel, *The mindful brain*, New York :Norton, 2006.
- [68] D. N. Stern, "A micro-analysi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regulating social contact between a mother and her three-and-a-half-month-old twin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Vol.10, pp.501-511, 1971.
- [69] D. N. Stern, *Mother and infant at play: The dyadic interaction involving facial, vocal and gaze behaviours*, In M. Lewis & L.A.Rosenblum(Eds.), *The effect of the infant on its caregiver*, pp.187-213, New York: Wiley, 1974.
- [70] D. N. Stern,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Basic Books, 1985.
- [71] D. N. Stern,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2nd ed.)*, New York: Basic Books, 2000.
- [72] D. N. Stern, *The present moment in psychotherapy and everyday life*, New York: Norton, 2004.
- [73] D. Stewart and A. Mickunas, *Exploring phenomenology*, Athens:Ohio University Press, 1990.
- [74] R. Stolorow and G. E. Atwood, *Contexts of being: the intersubjective foundation of psychological life*, Hillsdale New Jersey: Analytic Press, 1992.
- [75] R. Stolorow and F Lachmann, *Psychoanalysis of developmental arrests. New York :Intersubjective systems theory*, *Psychoanal Qm* Vol.67, No.431-449, 1997.

- [76] Tizourio-Mazoyer, Neural correlates of woman face processing by 2-month-old infants, *NeuroImage*, Vol.15, pp.454-461, 2002.
- [77] C. Trevarthen, Descriptive analysis of infant communicative behavior, In: Schaffer HR. *Studies in mother-infant interaction*, London: Academic Press, 1997.
- [78] C. Trevarthen, "Intrinsic motives for companionship in understanding: Their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for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Vol.22, pp.95-131, 2001.
- [79] C. Trevarthen and K. J. Aktien, "Infant intersubjectivity: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2, pp.3-48, 2001.
- [80] E. Tronick,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Vol.44, pp.112-119, 1989.
- [81] D. Victor, K. T. Kronmüller, H. Horn, C. Reck, and M. Hartmann, Die therapeutische Beziehung und Kooperation in der analytischen Kinder Jugendlichenpsychotherapie, In: G. Krampen, H. Zayer, W. Schönplüg & G.Richardt (Hrsg.). *Beiträge zur Angewandten Psychologie*, Bonn: Deutscher Psychologen Verla, 1999.
- [82] D. W.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London: Tavistock, 1971.
- [83] <http://terms.naver.com/entry.nhn>

저 자 소 개

최 이 선(Lee-Seon Choi)

정회원



- 2008년 : 숙명 여자 대학교 교육 심리 석사
- 2012년 : 숙명 여자 대학교 교육 학과 박사 수료
- 2008년 ~ 2013년 : 치료놀이 상담센터 연구원

▪ 현재 : 치료놀이 상담센터 소장  
<관심분야> : 교육, 상담, 심리치료